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태도

이인숙^{1*}

¹강동대학교 간호과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nd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Inn-Sook Lee^{1*}

¹Department of Nursing, Gangdo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전문대학교 학생 381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성별, 전공,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 1회 접촉시간, 접촉빈도, 접촉장소, 동반자 유형, 접촉이유,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성별, 연령, 전공,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 자주 접촉하는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로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의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nd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s i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included 381 college students by a convenience sample method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 to September 14, 2012 and analysed using SPSS/PC Win 12.0 program. The major finding were as follows; The scoe of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was 19.57 and the scoe of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s was 9.68.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ccording to sex, major, internet use time, experience, time, frequency, place, companion, reason of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and the most sexual stimulating materia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s according to sex, age, major, companion of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the most frequently contacting internet pornography, and the most sexually exciting internet pornography.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nd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ternet pornography, Sexual violence(rape) myth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음란물에 접촉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음란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이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촉을 제한하는

본 논문은 강동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Inn-Sook Lee(Gangdong College)

Tel: +82-43-879-3428 email: ilee001@gangdong.ac.kr

Received March 25, 2013

Revised (1st April 26, 2013, 2nd May 2, 2013)

Accepted June 7, 2013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

‘음란물은 이론이고 강간은 실전’ 이라고 하는데 이는 음란물과 성범죄가 매우 강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압축적이고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있다[2]. 실제로 음란물에 대한 접촉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았으며 성폭력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서적이거나 잡지 또는 음란물을 통해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 간에 있어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없는 대학생에 비해 자위행위, 성관계,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등이 유의하게 많았고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가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시기였던 경우에 키스,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가 높은 집단과 장시간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집단에서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의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5].

특히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행동 및 현재의 성경험을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두 번째로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현재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성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강간 통념 수용도와 성행동, 성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간범과 성폭력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강간 통념 수용 정도가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 보다 더 높았고 [7]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성행동과 성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8,9].

음란물, 성폭력, 강간 통념 수용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6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0]에 따르면 남성의 음란물 집착이 성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음란물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강간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에 대한 의존이나 집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폭력 통념의 현주소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의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

과 잘못된 성폭력 통념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81명이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장을 위하여 설문지 맨 앞장에 연구 참여 동의를 첨부하였고 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읽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수 산출의 근거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power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수 381명은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에서 power가 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1)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11]에서 사용했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성충동, 성행위의 모방, 음란물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추구성이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였다.

2)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태도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12]에서 사용했던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강간의 원인, 강간을 유발하는 상황, 성폭력과 강간의 정의, 부부강간, 성폭력의 후유증 등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을 많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72$ 이었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각 계열별로 편의 추출된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정된 학과의 학생들에게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자료의 비밀유지 및 연구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있음을 전달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배포한 400부 중 39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한 381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0.1%, 여성이 49.9%였으며 연령은 20세 미만 45.9%, 20세 이상 54.1%였다. 전공은 보건계열이 48.0%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26.0%, 공학계열 18.9%, 예체능계열이 7.1%였다. 1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분 미만 22.6%, 30분 이상-1시간 미만 22.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15.7%, 3시간 이상이 9.4%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있어서는 91.1%가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었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계기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다가 우연히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친구에게 정보를 얻어서 36.0%, 링크된 주소나 배너를 통해서 14.7%, 기타가 11.0%였다.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은 15분 미만이 71.2%로 가장 많았고 15분 이상-30분 미만 19.0%, 30분 이상-1시간 미만 7.8%, 1시간 이상이 2.0%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는 ‘가끔’이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주일에 1번, 한 달에 1-3번이 각각 8.1%였으며 1주일에 3번은 5.8%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장소로는 자신의 집이 77.5%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5.6%, 친구네 집이 6.9%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으로는 ‘혼자서’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많았고 동성친구 19.6%,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가 2.6%였다. 자주 접촉하는 인터넷 음란물로는 음란동영상이 71.2%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2.6%, 음란사진 9.2%, 성인만화와 야한소설이 각각 3.5%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유로는 호기심에서라는 응답이 55.3%, 기타가 14.7%,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4.1%, 친구가 권해서 6.9%, 인터넷에 재미있는 게 없어서 3.7%, 성행위에 대해 알고 싶어서 2.0%, 성지식을 얻기 위해서 1.7%,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1.4%였다.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로는 성행위가 60.8%였고 누드사진 6.3%, 몰래 카메라 4.9%, 변태 혹은 엽기가 2.9%를 차지하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의 차이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50점 만점에 19.57점(SD 6.21)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의 차이는 성별($t=5.307$, $p<.001$), 전공($F=6.879$, $p<.001$), 인터넷 1일 사용시간($F=2.448$, $p<.05$), 인터넷 음란물 접촉여부($t=4.586$, $p<.001$),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F=6.866$, $p<.001$), 접촉빈도($t=20.387$, $p<.001$), 접촉장소($F=7.115$, $p=.001$), 접촉 시 동반자 유형($F=8.396$, $p<.001$), 접촉이유($F=7.496$, $p<.001$),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F=2.645$, $p=.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있어 남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1.20점으로 여학생의 17.9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에 있어서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Table 1] Difference of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381)

Characteristics	Category	n(%)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t or F(p)	Scheffe
			Mean±SD		
Gender	male	191(50.1)	21.20±6.30	5.307(<.001)	
	female	190(49.9)	17.94±5.69		
Age(yr)	<20	175(45.9)	19.95±6.38	1.091(.276)	
	20≤	206(54.1)	19.25±6.06		
Major	human & social	99(26.0)	20.16±5.87	6.879(<.001)	a>b
	engineering ^a	72(18.9)	21.43±6.47		
	health ^b	183(48.0)	18.20±5.70		
	artistic & physical ^a	27(7.1)	21.78±7.92		
Internet use time/day	<30 minutes	86(22.6)	18.40±5.86	2.448(.046)	
	30 minutes ≤ <1 hour	85(22.3)	18.69±6.37		
	1 hour ≤ <2 hours	114(29.9)	20.53±6.18		
	2 hours ≤ <3 hours	60(15.7)	20.75±6.01		
	3 hours ≤	36(9.4)	19.47±6.57		
Contact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Yes	347(91.1)	20.01±6.17	4.586(<.001)	
	No	34(8.9)	15.03±4.65		
Contact chance of internet pornography	because of link	51(14.7)	20.61±5.93	1.439(.231)	
	information from friend	125(36.0)	20.73±6.48		
	by chance while internet	133(38.3)	19.32±5.92		
	etc.	38(11.0.)	19.32±6.17		
Contact time of internet pornography	<15 minutes ^a	247(71.2)	19.12±6.00	6.866(<.001)	a<b
	15 minutes ≤ <30 minutes	66(19.0)	21.86±5.62		
	30minutes ≤ <1 hour	27(7.8)	22.44±7.11		
	1 hour ≤ ^b	7(2.0)	24.86±6.04		
Contact frequency of internet pornography	3 times per week ^a	20(5.8)	24.65±6.83	20.387(<.001)	a>b
	1 time per week ^a	28(8.1)	25.14±5.92		
	1-3 times per month ^a	28(8.1)	23.79±4.17		
	sometimes ^b	271(78.0)	18.76±5.73		
Contact place of internet pornography	my house ^a	269(77.5)	20.67±6.12	7.115(.001)	a>b
	friend's house ^b	24(6.9)	17.25±6.20		
	etc.	54(15.6)	17.98±5.71		
Companion when contacts internet pornography	alone	270(77.8)	20.49±6.17	8.396(<.001)	
	homosexual friend	68(19.6)	17.59±5.36		
	opposite sex friend or senior/junior	9(2.6)	24.11±7.01		
The most frequently contacting internet pornography	loose photograph	32(9.2)	19.25±6.62	1.612(.171)	
	loose moving picture	247(71.2)	20.35±6.26		
	adult cartoon	12(3.5)	22.17±3.49		
	loose novel	12(3.5)	19.67±5.69		
	etc.	44(12.6)	18.23±5.78		
Contact reason of internet pornography	out of curiosity	192(55.3)	18.84±5.96	7.496(<.001)	
	because of uninterest	13(3.7)	26.08±6.66		
	to know sexual behavior	7(2.0)	22.29±7.45		
	to satisfy sexual need	49(14.1)	23.49±5.39		
	to solve stress	5(1.4)	26.40±3.65		
	to get sexual knowledge	6(1.7)	23.33±5.35		
	friend's persuasion	24(6.9)	18.13±5.71		
	etc.	51(14.7)	19.12±5.32		
The most sexually exciting internet pornography	nude photograph	22(6.3)	21.86±6.78	2.645(.033)	
	coitus	211(60.8)	20.26±6.06		
	hidden camera	17(4.9)	22.65±8.11		
	abnormal sexuality	10(2.9)	18.90±3.31		
	etc.	87(25.1)	18.58±5.84		
Total			19.57±6.21		

[Table 2]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myth acceptance attitud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381)

Characteristics	Category	n(%)	Sexual violence(Rape) myth acceptance attitude	t or F(p)	Scheffe
			Mean±SD		
Gender	male	191(50.1)	10.97±5.04	5.669(<.001)	
	female	190(49.9)	8.38±3.77		
Age(yr)	<20	175(45.9)	10.41±5.12	2.795(.005)	
	20≤	206(54.1)	9.06±4.08		
Major	human & social	99(26.0)	10.42±4.54	7.407(<.001)	a>b
	engineering ^a	72(18.9)	11.38±5.03		
	health ^b	183(48.0)	8.67±4.13		
	artistic & physical ^a	27(7.1)	9.30±5.48		
Internet use time	<30 minutes	86(22.6)	10.01±5.29	2.019(.091)	
	30 minutes ≤ <1 hour	85(22.3)	8.52±3.99		
	1 hour ≤ <2 hours	114(29.9)	9.71±4.26		
	2 hours ≤ <3 hours	60(15.7)	10.43±4.36		
	3 hours ≤	36(9.4)	10.28±5.58		
Contact experience of internet pornography	Yes	347(91.1)	9.75±4.73	.974(.330)	
	No	34(8.9)	8.94±3.44		
Contact chance of internet pornography	because of link	51(14.7)	9.82±5.15	1.182(.316)	
	information from friend	125(36.0)	9.14±4.32		
	by chance while internet	133(38.3)	10.18±5.01		
	etc.	38(11.0)	10.18±4.34		
Contact time of internet pornography	<15 minutes ^a	247(71.2)	9.54±4.88	.889(.471)	
	15 minutes ≤ <30 minutes	66(19.0)	10.23±4.15		
	30minutes ≤ <1 hour	27(7.8)	9.85±4.05		
	1 hour ≤ ^b	7(2.0)	11.00±8.19		
Contact frequency of internet pornography	3 times per week ^a	20(5.8)	12.25±4.15	2.180(.090)	
	1 time per week ^a	28(8.1)	10.18±3.80		
	1-3 times per month ^a	28(8.1)	9.29±4.22		
	sometimes ^b	271(78.0)	9.75±4.73		
Contact place of internet pornography	my house ^a	269(77.5)	9.83±4.83	.212(.809)	
	friend's house ^b	24(6.9)	9.25±4.41		
	etc.	54(15.6)	9.57±4.40		
Companion when contacts internet pornography	alone	270(77.8)	10.05±4.78	3.828(.023)	
	homosexual friend	68(19.6)	8.38±4.26		
	opposite sex friend or senior/junior	9(2.6)	11.11±4.96		
The most frequently contacting internet pornography	loose photograph	32(9.2)	11.19±5.78	2.770(.027)	
	loose moving picture	247(71.2)	9.68±4.55		
	adult cartoon	12(3.5)	12.08±3.37		
	loose novel	12(3.5)	10.58±5.78		
	etc.	44(12.6)	8.23±4.52		
Contact reason of internet pornography	out of curiosity	192(55.3)	9.58±5.18	1.320(.240)	
	because of uninterest	13(3.7)	12.23±3.44		
	to know sexual behavior	7(2.0)	10.14±3.29		
	to satisfy sexual need	49(14.1)	10.55±3.77		
	to solve stress	5(1.4)	10.00±6.08		
	to get sexual knowledge	6(1.7)	9.83±2.86		
	friend's persuasion	24(6.9)	10.50±4.74		
	etc.	51(14.7)	8.55±4.02		
The most sexually exciting internet pornography	nude photograph	22(6.3)	10.09±5.55	4.315(.002)	a>b
	coitus	211(60.8)	9.82±4.39		
	hidden camera ^a	17(4.9)	13.12±4.41		
	abnormal sexuality	10(2.9)	12.10±7.16		
	etc. ^b	87(25.1)	8.57±4.70		
Total			9.68±4.63		

21.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예체능계열 학생들과 공학계열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1일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추구성이 20.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 유무에 있어서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0.01점으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15.0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에 있어서는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4.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들이 15분 미만인 학생들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추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1주일에 1회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5.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인터넷 음란물을 1주일에 3회, 1주일에 1회, 1달에 1-3회 접촉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가끔 접촉하는 학생들보다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장소에 있어서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0.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학생들이 친구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학생들보다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으로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인 경우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유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6.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몰래 카메라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22.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30점 만점에 9.68점(SD 4.63)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성별($t=5.669, p<.001$), 연령($t=2.795, p=.005$), 전공($F=7.407, p<.001$),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F=3.828, p=.023$), 자주 접촉하는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F=2.770, p=.027$),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F=4.315, p=.002$)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성별에 있어 남학생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0.97점으로 여학생의 8.3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미만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0.41점으로 20세 이상 학생들의 9.0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에 있어서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1.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공학계열 학생들과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보건계열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유형으로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라고 응답한 경우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1.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주 접촉하는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성인만화를 보는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2.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몰래 카메라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1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몰래 카메라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기타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3.4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어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았다($r=.121, p=.018$)[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and sexual violence myth acceptance attitude

Variable	Internet pornography seeking
	r(p)
Sexual violence myth acceptance attitude	.121(.018)

4. 논의

정보화 사회는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보화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다[13]. 이러한 역기능 중 하나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과도한 추구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50점 만점에 19.57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던 선행연구[14]와 음란물 추구성에 대

한 점수를 비교하고자 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음란물 추구성에 대한 평균값 제시 대신 음란물 추구에 대한 적극적인, 소극적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만 점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6] 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재와 과거 각각 약 6.8배, 8.6배씩 더 높은 음란물 접촉빈도를 보였으며 성과 관련된 경험도 2.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에 있어 예체능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았던 것은 예체능계열에 남학생의 분포 비율이 높기 때문이지 아니면 학과의 수업 특성상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인지에 대해 좀더 신중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인터넷 1일 사용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인 집단,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인터넷 음란물 1회 접촉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집단,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가 1주일에 1회인 집단, 인터넷 음란물 접촉장소가 본인의 집인 집단,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가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인 집단,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유가 스트레스 해소인 집단,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몰래 카메라로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으며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성과 함께, 자주, 장시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집단에서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멀리하고자 하는 개인의 결연한 의지와 인터넷 음란물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써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선행연구[15]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군의 경우 컴퓨터 설치 장소가 공부방인 경우가 64.5%로 비중독군의 47.8%보다 높았다.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인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기회가 비교적 감소하므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추구성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의 차이를 파악하지 않았으나 학년 대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6]에서 음란물 접촉 점수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란물 접촉이 계속 증가하기 보다는 고등학교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는 음란물 접

촉빈도가 어느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음란매체의 문제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성교육의 기회가 부족할 경우 음란물 접촉에 의해 강간 통념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각 주(州)의 포르노 잡지 판매 부수와 그 주의 강간율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7]. 또한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강간범이나 아동 치한범들이 다른 범죄자보다도 포르노 잡지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추구는 단지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단적 차원을 넘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더욱 공고히 형성하게 하고 성폭력을 행하는 데 있어 매우 커다란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그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나타낸다. 동시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특정 사회가 성(sexuality)에 대해 갖는 가치관과 폭력행위의 허용 정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19].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30점 만점에 9.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했던 선행연구[12] 결과에서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9.34점이었음 볼 때,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간통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관련되어 깊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 ‘강간은 피해자 여성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행위’ 라고 믿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 유발적 강간의 그릇된 통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비교적 관대히 받아들이게 하면서 강간의 책임을 가해자인 남성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돌리는 피해자 비난 논리로 발전되고 있다[19].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통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강간을 하는 것은 남자들의 순간적인 성충동 때문이다’ 로 57.8%의 여대생이 ‘그렇다’ 라는 응답

을 하였다[20].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옷차림이 야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면 그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였으며 33.7%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렇듯 여성들 자신조차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회의 강간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상대 이성의 성적 가치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인지(gender awareness) 교육이나 성감수성(gender sensitivity) 훈련 등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시작되는 사춘기 이전부터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1].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정으로부터 폭력경험을 감소시키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22].

본 연구결과 20세 미만 집단이 20세 이상 집단보다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결과[4]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강간통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음란물 접촉이 중학생보다 높고 이러한 음란물 접촉으로 인해 성지식과 성태도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5]. 그러나 대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강간통념을 더 낮게 수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증가된 성교육 기회와 여러 종류의 올바른 성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잘못된 강간 통념이 수정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계열에 있어서는 공학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학계열의 경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남학생들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여학생보다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이성친구 혹은 선후배와 함께 하는 집단, 인터넷 음란물의 종류로 성인만화를 보는 집단,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로 몰래 카메라를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이성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을 보면서 음란물의 상황과 같이 상대 이성에게 성행동을 하거나 혹은 이성과의 성행동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성적 자극이 가장 큰 인터넷 음란물로 몰래 카메라를 선택한 집단의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은밀한 상황을 보면서 성적 자극을 느낀다는 것은 그 상황에 자신이 직접개입되어 있지 않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특정상황에 누군가가 처해 있음을 관찰하면서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집단에서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

한 결과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에는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4]와 일치하였는데,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자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음란물 접촉과 강간통념 수용도 간에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16]. 이는 여학생의 경우 강간통념에 관련된 내용을 여성 자신의 심리적 경험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에 접촉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닌 왜곡된 상황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강간통념 수용은 데이트 상대에 대한 통제 경향성을 높여 데이트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23].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성폭력 피해상황을 유발하는데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의 강간 통념이 이성교제 시 성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폭력 통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릇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두 변수 모두 성별과 전공, 인터넷 음란물 접촉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 간에는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이 높을수록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가 높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을 감소시키고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별과 전공, 인터넷 음란물 접촉 관련특성 등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성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전문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게 확대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좀더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 통념 수용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G. Kim, "The Predictive Factors on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i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24, No.2, pp.1-33. 2012.
- [2] R. Morgan, *Going too far*, Vintage Books, 1978.
- [3]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Sexual Violence Situation and Measures through Adolescents' Sexual Culture*". Seoul;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1997.
- [4] J. H. Ko, Y. D. Ji, "The Roles of Several Mediators and Moderators between Pornography and Rape Myth",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0, No.1, pp.87-105, 2002.
- [5] I. S. Lee, J. Y. Cho,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0, No.2, pp.59-68, 2007.
- [6] L. E. Jue, S. S. Ha, S. M. Kw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x Behavior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often Use Internet Adult-only Sit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4, pp.965-982, 2002.
- [7] N. M. Malamuth,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7, pp. 138-157, 1981. DOI: <http://dx.doi.org/10.1111/j.1540-4560.1981.tb01075.x>
- [8] S. J. Lee, "Development of a Rape Myth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4, No.2, pp.131-148, 1999.
- [9] S. J. Lee, S. J. Choi, "Rape Myths Acceptance and Violent Sexual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5, No.2, pp.97-116, 2001.
- [10] J. Y. Kim, S. H. Lee, J. H. Choi, "Correlation among Pornography Obsession, Rape Myth Acceptance and Sexual Assault Perpetration in 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28, pp.65-92, 2011.
- [11] K. S. Kim, "A study of Adolescents' Sex Attitude and Behavior of Online Pornograp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0.
- [12] H. M. Nam,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13] K. S. Oh, "Internet Addiction and Internet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5B, pp.2703-2712, 2010.
- [14] M. H. Kim, "Study on sex -attitudes and sex-behaviors of adolescents based on contacting internet obscen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3.
- [15] Y. R. Cho, Y. H. Kim, "Difference of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Existence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0, No.6B, pp.3121-3132, 2008.
- [16] G. H. Lee, H. J. Kang, "The Relations among Rape Myth, Types of Sex Role, and Exposure to Sexually Obscene Material",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11, No.3, pp.23-40, 2005.
- [17] L. Baron, M. A. Straus, "*Sexual Stratification, Pornography, and Rape in the United States*", In Malamuth, N. M. & Donnerstein, E(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Y; Academic Press, 1984.
- [18] W. L. Marshall, *Pornography and Sex Offenders*, In D. Zillmann & J. Bryant(Eds.), *Pornography: Research Advances and Policy Considerations*. Hillsdale, NJ: Erlbaum, 1989.
- [19] Y. H. Lee, "The Harmful Impacts of Social Myths on Rape Victims", *Journal of Unification Issu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pp.279-293, 1997.
- [20] H. N. Jeung, "Cognition on the Dating Sexua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Duksung Women's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Research Review*, Vol.24, pp.27-39, 2008.
- [21] N. M Yang, J. Y. Lee, "The Effect of Rape Myth on the Sexual Assertiveness and Control Dispositio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Equity Awarenes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47, No.1, pp.39-65, 2008.
- [22] H. S. Kang, E. S. Lee,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s of Dat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7, No.3, pp.75-84, 2010.
- [23] J. Y. Lee, E. S. Lee,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7, No.2, pp.265-282, 2005.

이 인 숙(Imn-Sook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 학사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0년 3월 ~ 1991년 6월 :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 1991년 7월 ~ 1997년 2월 : 한성대학교 건강관리실
- 1997년 3월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1998년 3월 ~ 2013년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학교보건